

I. 시작하는 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사도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에는 그 해결방법을 ‘부르심’이라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II. 중심 말씀

1. 누가 나를 부르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때에 나의 그 자리가 마치 내가 선택해서 그곳에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택하셔서 그 곳에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나눔 질문) _____

2.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곧 은혜입니다. 나의 행위와 다른 이의 도움으로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만든 복음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입맛에 맞는 말씀을 이용하여 내 행위를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복음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눔 질문) _____

3. 누구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의 기쁨을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눔 질문) _____

III. 정리하는 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주 안에서 온유하고, 주 안에서 담대해야 합니다. 우유부단과 거침움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은혜의 복음 속에 들어가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하며 점검해야 합니다.

1. 환영의 시간(Welcome) : 행복한 기억 나누기

◆ 임재찬양

- 1)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 2)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 마음문 열기 : 한 주간 감사 나누기, 게임

2. 경배의 시간(Worship) :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경배하기

◆ 찬송가 “부름 받아 나선 이 몸”(찬323)

- 1)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오루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 2)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 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 없이 드리리다
- 3)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 가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 쏟아놓는 기도 :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 3)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 말씀 나눔의 시간(Word) :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 말씀 나눔 및 결단의 기도

◆ 기도제목 나눔 및 합심 기도

4. 사역의 시간(Works) :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 교회를 위한 기도 -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위정자를 위하여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